

구례, 1조 규모 '양수발전소' 유치 나선다

군의회·한국중부발전과 업무협약 체결… 유치 신청 공동 협력

협약 후 후보지 입지조사·주민설명회 거쳐 정부에 사업 신청

구례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양수발전소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협약 체결식은 구례군과 구례군의회, 한국중부발전 3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을 위해 공동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구례군 김순호 군수,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수발전소는 전력수요가 적은 시기대에 하부지의 물을 상부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기대에 상부지에서 하부지로 물을 떨어



뜨거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시설이다.

이같은 발전소는 에너지 수급 안정

성, 환경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에너지 생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지로 인정받고 있다.

양수발전소 건설은 약 1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으로 건설 기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은 건설 및 운영 기간 동안 법률에 따라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부·하부 저수지는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유치 열기가 뜨겁다.

구례군은 양수발전소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군의회와 함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협약 후에는 후보지 입지 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구례=오광범 기자

곡성 "애들아! 자연과 함께하자"

군미래교육재단, 벼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어린이 집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벼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벼 생태체험'은 모내기부터 논의 생태환경, 추수까지 벼의 생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할 수 있는 '유아부터 도록 구성됐다.

모내기부터 논의 생태환경, 추수까지 벼의 생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할 수 있는 '유아부터 자연과 함께 자라는 숲은 내 친구' 프로젝트다.

모내기 체험 후 오는 6월에는 논의 생태와 논의 사는 곤충을 관찰한다. 10월 추수 체험에는 벼 베기, 탈고, 가래떡 구워 먹기, 쌀강정 만들기 등을 거쳐 유아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아이들이 생물다양성의 이해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앞으로 다양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숲·생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곡성=황상연 기자

광양 진상5일시장 지역예술인 한마당 행사

오는 3일 초청 공연·고객 경품 행사 등 진행

선사할 계획이다.

진상5일시장은 2021년 10월 준공 이후 식당, 치킨집, 카페, 분식집, 농자재, 건어물, 꿩집 등 8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으며, 아케이드 공사가 완료된 노점 42개소는 현재 뺏튀기, 의류, 신발, 수산물, 고기, 지역 농특산물 등 규모는 작지만 전통시장으로서의 구성을 갖춰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진상면이장협의회 주관으로 100년 전통의 역사를 가진 진상5일시장의 재개장에 이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역예술인 초청 공연과 고객 경품행사로 진행된다.

행사를 후원하는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광양지회는 지역 가수 공연과 통기타 공연, 퓨전 장구 공연 등 색다른 무대를 준비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광양=조준익 기자

보성 소통의 숲 '윤제림' 유로화 전환

보성군 결백면 주월산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소통의 숲 '윤제림'이 힐링의 공간으로 여행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윤제림'은 거의 100만 평(337ha) 규모를 자랑하는 곳으로 6월이면, 지난해보다 풍성해진 수국 4만 본이 개화를 앞두고 있다.

또한 구인 기업의 균무환경, 복리후생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업 홍보 영상, 이력서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구직자의 잠재력을 내세울 수 있는 구직자 자기소개 영상까지 탑재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광양=조준익 기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고려해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윤제림은 그 규모만큼이나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주월산 정상에서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이 가능하고, 전라남도 민간 정원 제12호로 지정된 성립원이 있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임산물 따기 체험은 모노레일을 타며 숲을 느끼고 숲을 이해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윤제림은 숲 속 야영장 야영테크(15개소), 숲 속의 집(12동), 아치하우스(12동), 단독숙박시설(6동) 등을 갖춰 300명이 동시에 투숙할 수 있는 신림 휴양 시설이기도 하다.

/보성=장국도 기자

순천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

이사 13명 이내·감사 1명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은 제2기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문화재단을 운영할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제3기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원은 이사 13명(상임이사 포함), 감사 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임기는 2년이며, 이사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감사의 경우 재단의 재산 상황 및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발 절차는 임원주전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임원후보자를 확정해 이사장에게 추천하면 이사장이 최종 임명한다.

응모자격은 이사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풍부한 자,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자,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과 혁신마인드를 가진 자 등이며, 감사는 회계 및 감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순천시청 또는 순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6월 1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순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접수하면 된다.

(재)순천문화재단은 순천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정책 개발, 예술 활동 지원, 시민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져 있다. 이는 시가 제시한 '인근 도시 연계 메가시티'나 '세계적인 생태도시'라는 정원박람회 이후 밀그림과 그 결과를 같이 하고 있어 그 귀주가 주목된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 조립장 유치에서는 압도적인 순천시 미래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보였다. 문화산업 시장성이 높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은 수도권 대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할 주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순천청년의 인식 차변에는 생태수도의 '본질'과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순천=조준익 기자

순천청년 74%, 일류순천 변화에 긍정적 기대감 보여

시정 현안에 대한 SNS 청년 인식 설문조사 추진

정원박람회 흥행·한화 단 조립장 유치 등 관심

전국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청년 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순천청년 약 74%가 긍정적 기대감을 보였다.

청년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를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18일까지 17일 동안 4대 시정 현안, '2023순천민국제정원박람회 흥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 조립장 유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경전선 노선 우회'에 대한 청년 인식 및 기

대 정도를 물어봤다.

일류순천 변화에 약 74% 기대감을 보인 청년들은(135명) 세부적으로 정원박람회 흥행에 86%로 가장 큰 기대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치 74%,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이 71%, 경전선 노선 우회 66% 순으로 관심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정원박람회 개별 단위 밭전보다는 관광도시(특구) 등 광역화에 순천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 자연, 생태 중심의 자연 친화적인 시민 인식보다는 시정 현안사업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

광양, 일자리 한눈에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

적인 구인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スマ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비 2억 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응용 사전 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보이는 일자리' 홈페이지를 전격 구축한다.

새롭게 구축될 플랫폼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광양시를 비롯한 공공 기관 일자리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해, 수요자 종

식에서 광양시민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민관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구인 기업의 균무환경, 복리후생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업 홍보 영상, 이력서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구직자의 잠재력을 내세울 수 있는 구직자 자기소개 영상까지 탑재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광양=조준익 기자

곡성군

한 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가지?

집나가면
'그녀'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곡성여행

검색

2018년 곡성군 자연공모전 회장곡상상 수상작